

### 국제관계와 미중 갈등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 ■ 국가,국제기구의 세계에 미칠 영향 평가

- \_ 세계에 긍정 영향 미칠 국가 :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 \_ 글로벌 조사에서는 한반도 주변국가 긍정영향력 높아
- \_ 여자 2030세대, 국민전체에 비해 부정적 평가
- \_ 40대 남녀간 인식 차이 두드러져
- \_ 남녀 60대이상, 가장 긍정적 평가
- \_ 국민전체 대비 중도층 부정적이고, 진보층 긍정적

#### ■ 미중 갈등 전망 및 대한민국 방향성

- \_ 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미국 86% vs 중국 5%
- \_ 향후 세계 최고 경제강국 전망, 미국 57% vs 중국 25%
-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
- \_ 중장기적 경제협력 강화 국가, 미국 72% vs 중국 14%
- \_ 향후 세계대전, ‘발생할 것’ 32% vs ‘발생않을 것’ 68%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6월 4일(금) ~ 6월 6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4\%$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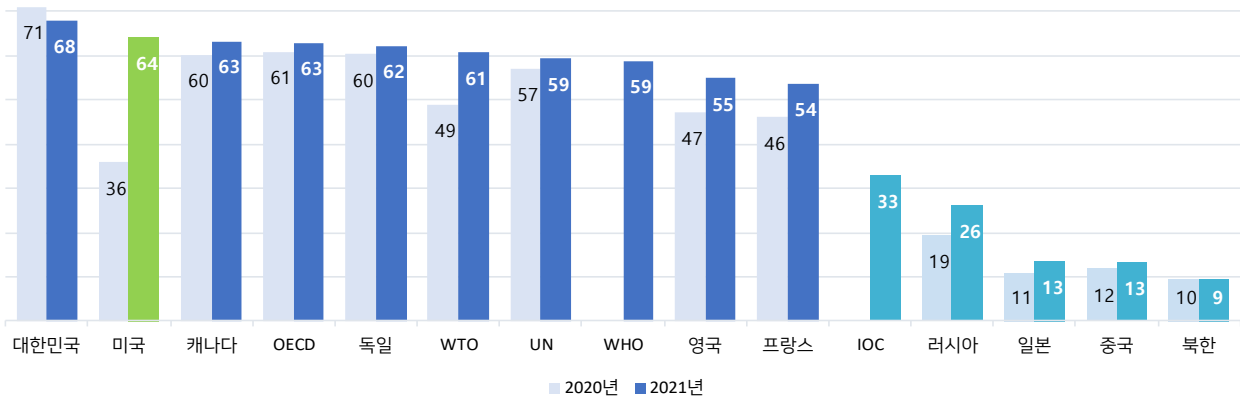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국가,국제기구의 세계에 미칠 영향 평가

### 향후 세계에 긍정영향 미칠 국가 :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 우리 국민들은 많은 국가-국제기구 중에 대한민국이 세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함
  - “다음 10년을 생각하면서, 아래 국가나 국제기구가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국민 중 68%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함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은 22%이고, ‘모름.무응답’은 10%로 조사됨
-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미국(64%), 캐나다(63%), OECD(63%), 독일(62%), WTO(61%), UN(59%) 등이 뒤를 이음
- 세계에 미칠 긍정영향 평가가 가장 낮은 국가는 북한(9%)이고, 다음으로 중국(13%), 일본(13%) 등이 낮은 평가를 받음
- 작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거의 모든 국가-국제기구의 긍정평가율이 비슷하나, 미국의 경우 큰 폭의 상승을 보임
  - 이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뀐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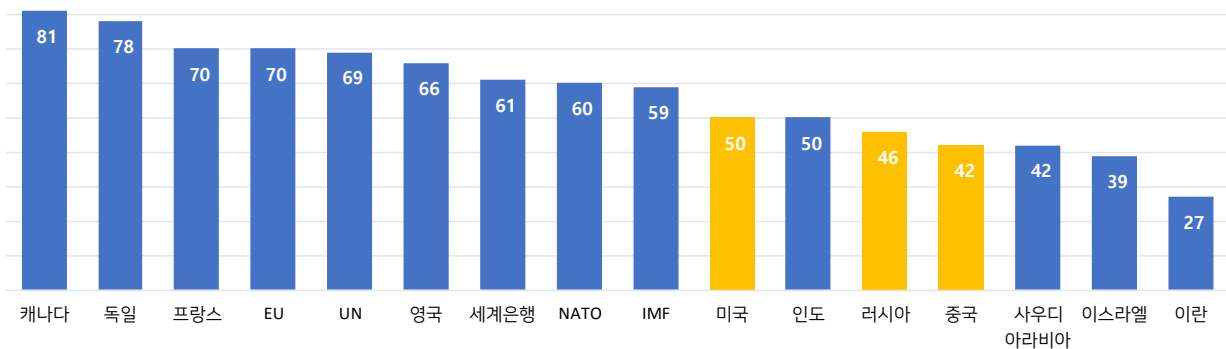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향후 영향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
  - : 일본, 중국의 긍정평가율은 동일하게 13%에 불과하고, 북한은 가장 낮은 9%를 기록함
  - :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26%이지만,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 ☑ 미국에 대해서도 작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36%라는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뀐 이후에 64%로 수직 상승함
  - : 이렇게 볼 때 우리 국민들은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가들 중 미국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 한편, 국제기구들의 세계 영향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만큼은 긍정 평가율이 낮음(33%)
  - : 이는 최근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IOC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는 달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글로벌 조사에서는 한반도 주변국가 긍정영향력 높아

- 글로벌 여론조사 기업인 ‘입소스’에서 2020년 9월 전 세계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 보면, 향후 전 세계에 미칠 긍정영향력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81%)로 나타남
  - 다음으로 독일(78%), 프랑스(70%), EU(70%), UN(69%), 영국(66%) 등이 뒤를 이음
- 긍정평가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란으로 27%에 불과하고, 다음으로 이스라엘(39%), 사우디아라비아(42%) 순임
-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긍정평가율을 살펴보면 한국민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중국 42%, 러시아 46%, 미국 50% 등임 (입소스 조사시점을 볼 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으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임)
  - 입소스 조사에서는 일본과 북한이 조사 항목에 없음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입소스글로벌,2020.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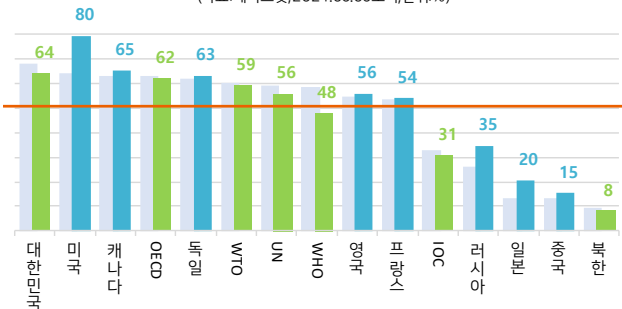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케이스탯 조사와 입소스의 조사가 조사기간 및 대상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글로벌 조사 1위인 캐나다가 케이스탯 조사에서도 높은 순위(3위)를 기록하는 등 비슷한 흐름을 보임
  - : 독일, 프랑스, UN 등 상위권에 속한 국가-국제기구에 대한 평가 역시 입소스 글로벌 조사와 케이스탯 조사결과가 유사함
- ☑ 하지만 한반도 주변국가들에 대한 평가는 글로벌과 한국민 간의 인식 차이가 큼
  - : 중국 긍정평가율, 글로벌 42% vs 한국민 13%
  - : 러시아 긍정평가율, 글로벌 46% vs 한국민 26%
- ☑ 한국민들이 미국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가들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는 지적임
  - : 앞서 케이스탯 조사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68%로 1위를 기록한 데서 보듯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주변국가들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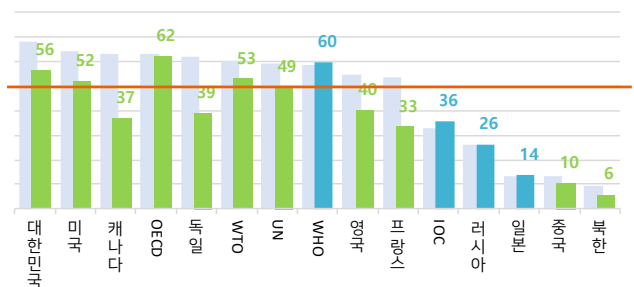
## □ 여자 2030세대, 국민전체에 비해 부정적 평가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긍정평가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냄
  - 그림에서 오픈 파란색 막대가 국민전체 긍정평가율이고, 국민전체 긍정평가율 이상은 푸른색 막대, 국민전체 긍정평가율 미만은 초록색 막대임
  - 주황색 선은 긍정평가율 50%를 의미함
- 특히 여자 30대는 모든 국가·국제기구에 대해 국민전체 보다 긍정평가율이 낮고, 50% 이상을 기록한 국가·국제기구 역시 5개에 불과함
  - 긍정평가율 50% 이상 국가·국제기구는 대한민국, OECD, WTO, UN, WHO 등임
- 여자 18~20대 역시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보다 낮은 긍정평가율을 기록함
  - 긍정평가율 50% 이상 국가·국제기구는 대한민국, 미국, OECD, WTO, WHO 등 5개임
- 이에 비해 남자 2030세대는 국민전체 보다 높거나 낮은 모습을 보여, 여성층과 대비됨
  - 남자 2030세대가 국민전체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국가·국제기구는 거의 같음(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러시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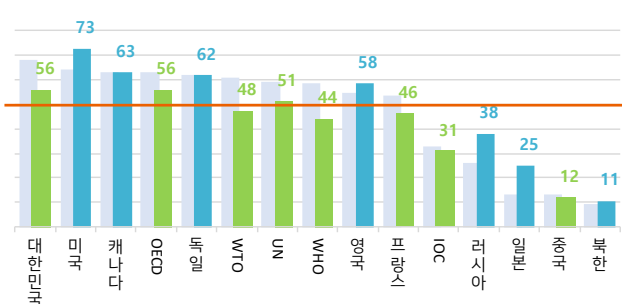
남자 18~20대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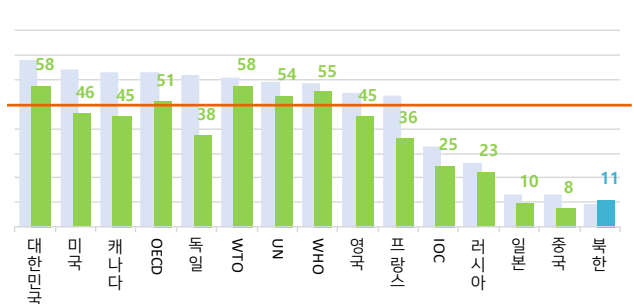
여자 18~20대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남자 30대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여자 30대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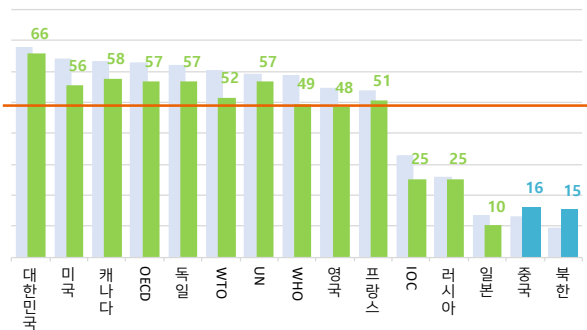
### Kstat Point

- ☑ 각종 정치·사회여론조사에서 남자 2030세대와 여자 2030세대 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번 국가·국제기구 세계 영향력 평가에서도 인식차이가 재현됨
- ☑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전체에 비해 여자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남자 2030세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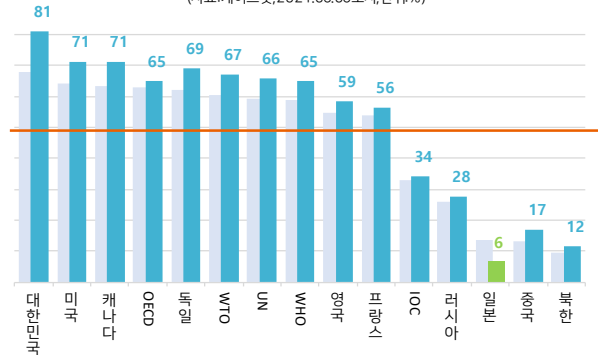
## □ 40대 남녀간 인식 차이 두드러져

- 4050세대는 전반적으로 2030세대에 비해 긍정평가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2030세대는 긍정평가율이 50% 이상을 넘는 국가·국제기구 수가 절반 정도인데 비해, 4050세대는 하위 5개 국가·국제기구(IOC, 북한 등) 외에는 대부분 50% 이상의 긍정평가율을 기록함
  - 그림에서 열린 파란색 막대가 국민전체 긍정평가율이고, 국민전체 긍정평가율 이상은 푸른색 막대, 국민전체 긍정평가율 미만은 초록색 막대임
  - 주황색 선은 긍정평가율 50%를 의미함
- 40대 남녀간의 인식차이가 가장 커, 일종의 ‘세대 경계’ 양상임
  - 남자 40대는 거의 대부분 국민전체 보다 낮은 긍정평가율을 기록한데 비해, 여자 40대는 거의 대부분 국민전체 보다 높은 긍정평가율을 기록함
- 이러한 40대 남녀간 인식차이를 지나 50대 남녀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인식을 보임
  - 50대 남녀 모두 국민전체에 비해 긍정평가율이 높거나 낮은 경향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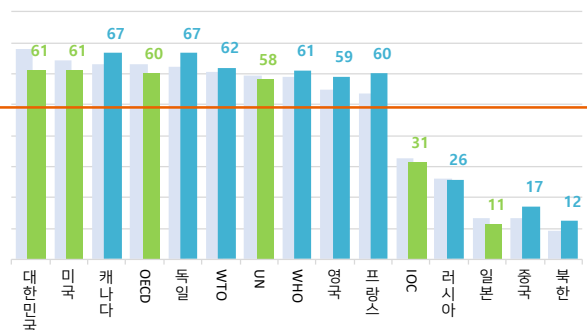
남자 40대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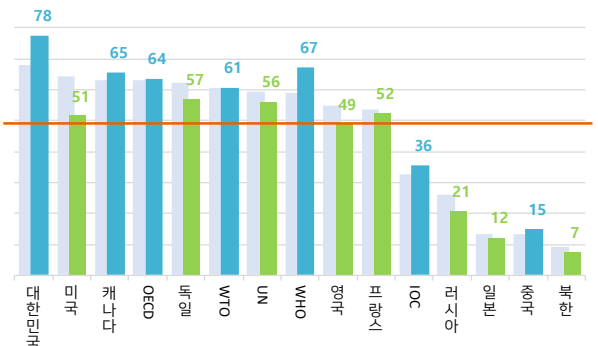
여자 40대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남자 50대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여자 50대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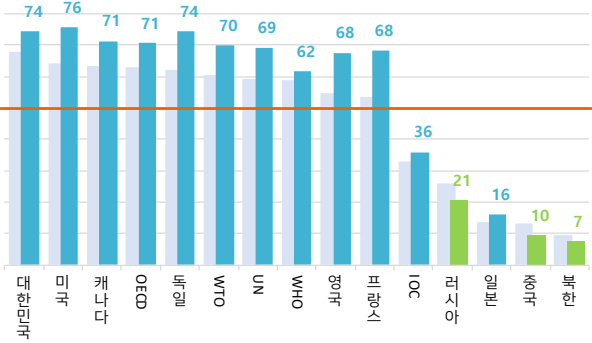
### Kstat Point

- ☑ 향후 10년을 생각하면서 국가·국제기구의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생각에 있어, 남자 40대는 국민전체 보다 부정적이고, 여자 40대는 국민전체 보다 긍정적이라는 특징이 뚜렷함
- ☑ 50대는 남녀간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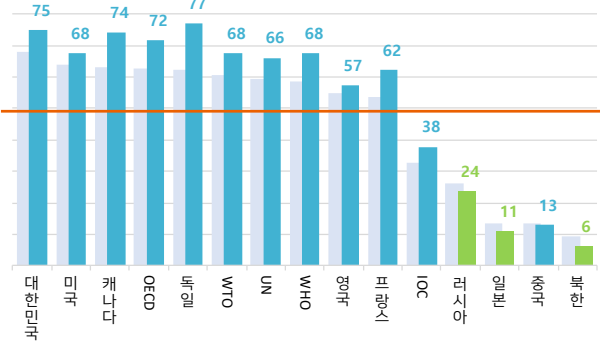
## □ 남녀 60대이상, 가장 긍정적 평가

- 남녀 60대이상은 거의 모든 국가·국제기구에 대한 긍정평가가 국민전체 보다 높음
- 남녀간 차이도 거의 없어, 국가·국제기구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것으로 보임

남자 60대이상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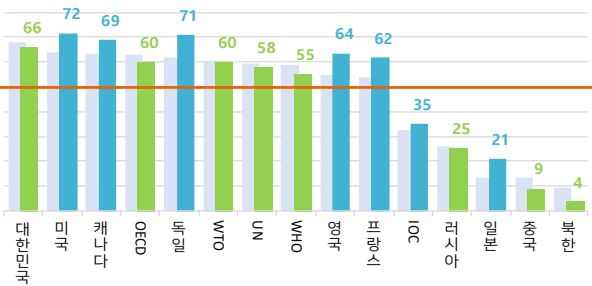
여자 60대이상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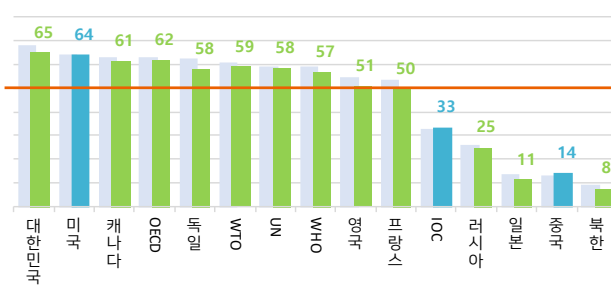
## □ 국민전체 대비 중도층 부정적이고, 진보층 긍정적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은 국민전체 대비 긍정/부정이 혼재되어 있고, 중도층은 부정평가가 많으며, 진보층은 긍정평가가 많은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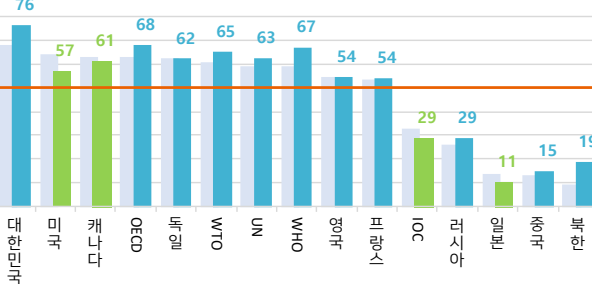
보수층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중도층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진보층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긍정평가율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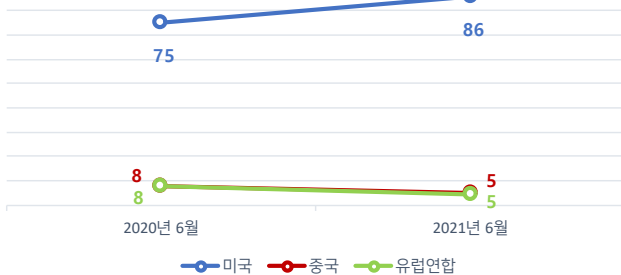
☑ 미국에 대한 평가만 놓고 보면, 긍정평가율 높은 순서가 보수층 > 중도층 > 진보층 순이라는 특징이 드러남

## 미중 갈등 전망 및 대한민국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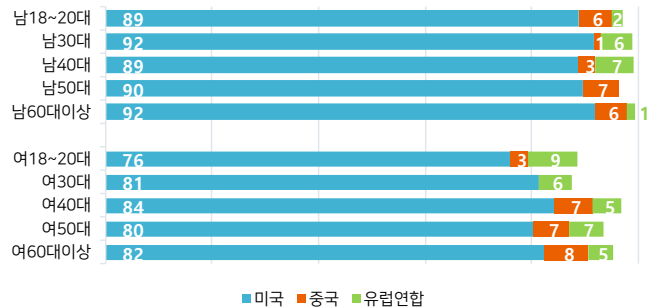
### □ 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미국 86% vs 중국 5%

-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는 현재 세계 최고의 경제력 보유국으로 미국을 꼽음
  -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중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미국 86%, 중국 5%, 유럽연합 5%, 일본 0.1% 등으로 응답함 (잘 모르겠다, 4%)
- 작년 6월과 비교하면 미국이라는 응답은 11%p 상승하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3%p 하락함
  - 유럽연합 응답도 3%p 하락, 미국 쏠림 현상이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봐도 모든 계층에서 미국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아, 국민 전체의 일치된 생각인 것으로 보임
  - 미국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남자 5060세대 △보수층 등임
-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여자 60대이상 △TK △진보층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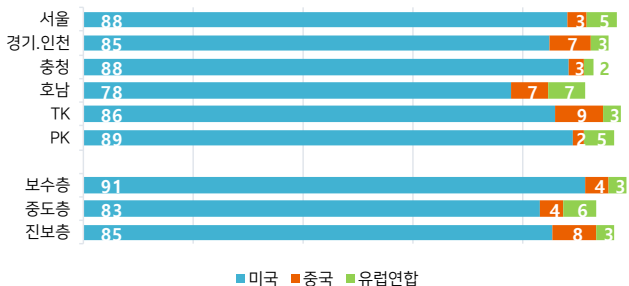
현재 세계 최고 경제력 보유국 인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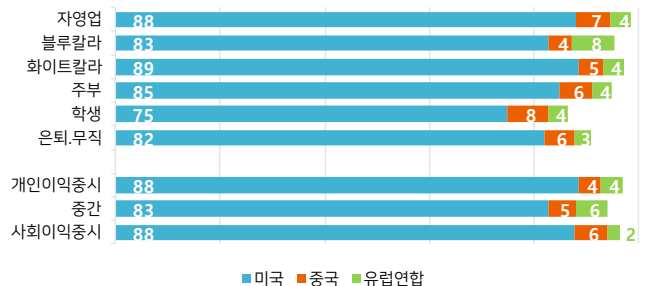
현재 세계 최고 경제력 보유국 : 성/연령별 (2021.06.06조사,단위:%)



현재 세계 최고 경제력 보유국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현재 세계 최고 경제력 보유국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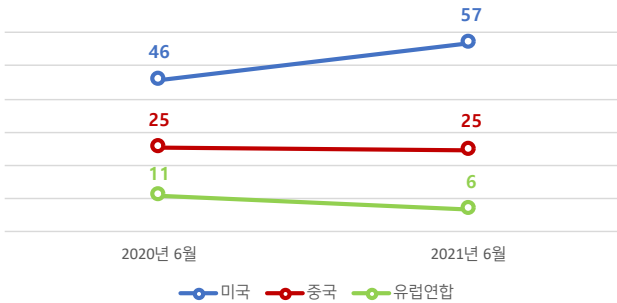
- ☑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미중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고 있음
-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현재 세계 최고 경제력 보유국’은 ‘미국’이라는 생각이 확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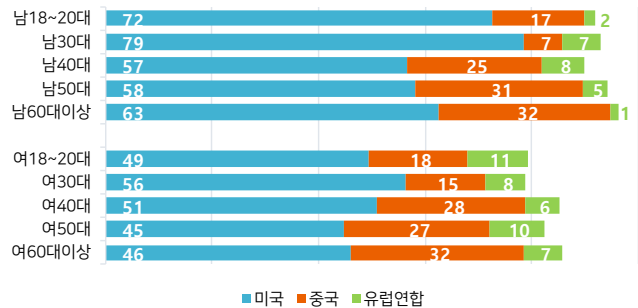
## □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미국 57% vs 중국 25%

- 국민 다수는 미국이 현재 세계 최고 경제 강국이자, 앞으로도 최고 경제 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앞으로 20년을 전망할 때, 다음 중 어느 국가가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국민 중 57%는 미국을 꼽았고, 다음은 중국(25%), 유럽연합(7%), 일본(0.7%) 순으로 응답함 (잘 모르겠다, 11%)
- 작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미국은 11%p 상승한데 비해 중국은 그대로이고, 유럽연합은 5%p 하락함
  - 일본에 대한 평가는 앞서의 현재 세계 강국에 이어 향후 세계 강국에서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봐도 모든 계층에서 미국 우위가 확고함
  - 미국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PK △보수층 △자영업자 등임
- 중국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60대이상 △호남 △진보층 △사 회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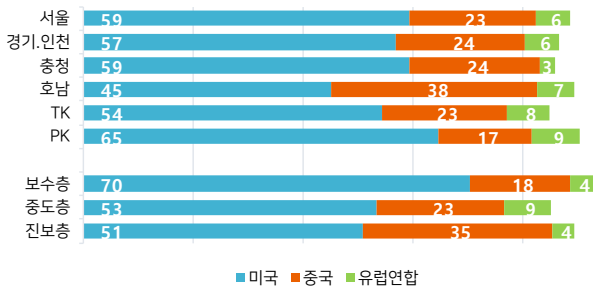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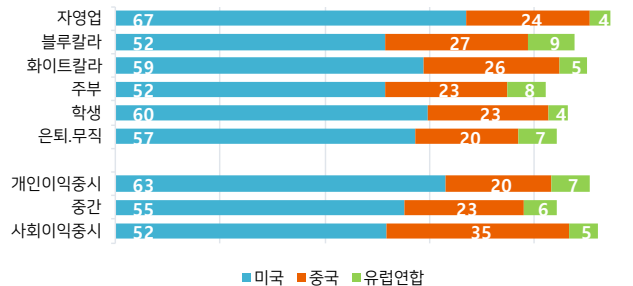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 성/연령별 (2021.06.06조사,단위:%)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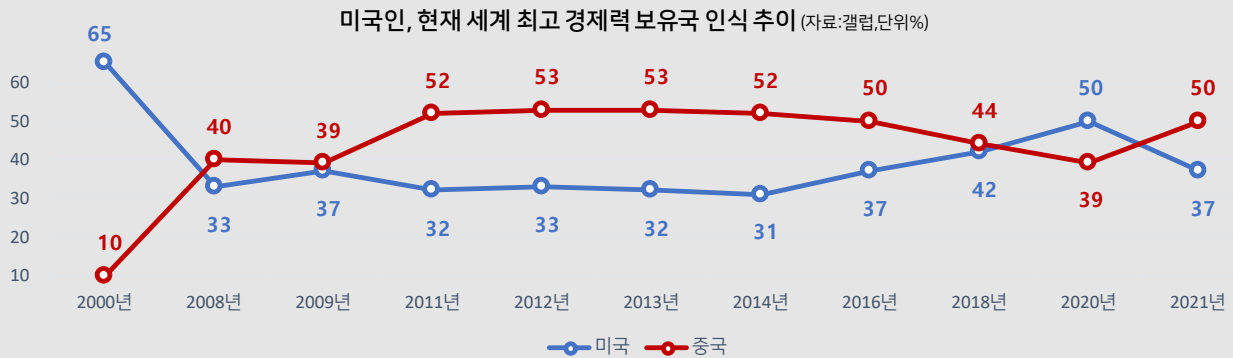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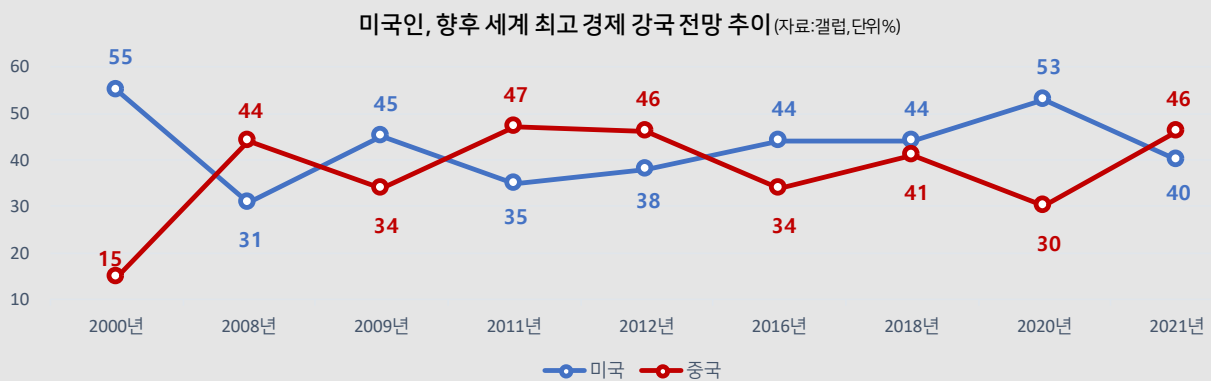
- ☑ 앞서 ‘현재 세계 최고 경제 강국’에 이어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에서도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미래 부상을 전망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존재함
  - 현재 세계 최고 경제 강국, 미국 86% /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미국 57%
  - 현재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중국 5% /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중국 25%
- ☑ 향후 전망에 있어 특이한 점은 2030세대는 미국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고, 4060세대는 중국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임
  - 또한 보수층은 미국 절대 우위인데 비해, 진보층은 중국이라는 응답이 높은 점도 흥미로운 지점임

### <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 >

- ☑ 우리 국민들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미국이 세계 경제강국의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미국인들은 중국의 경제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 먼저 '현재 세계 최고 경제력 보유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2008년을 기점으로 '중국'이라는 생각이 계속 유지되다가 2020년에야 역전했지만, 2021년에는 다시 '중국'이라는 생각이 우위를 보임
  - : 2020년에 '미국'이 우위를 보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시작된 미중간 무역갈등과 대중국 견제 본격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보임
  - : 2021년에 다시 '중국'이 우위를 보인 데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임(갤럽 조사시점이 2021년 2월로, 당시는 지금의 미국과 달리 백신 접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음)



- ☑ 향후 세계 최고 경제강국 전망 역시 미국인들은 '중국'을 크게 의식하고 있음
  - : 2008년 이후 미국, 중국 우위가 혼전을 거듭할 정도로 중국을 의식하고 있고, 2021년에는 근소하게 중국이 우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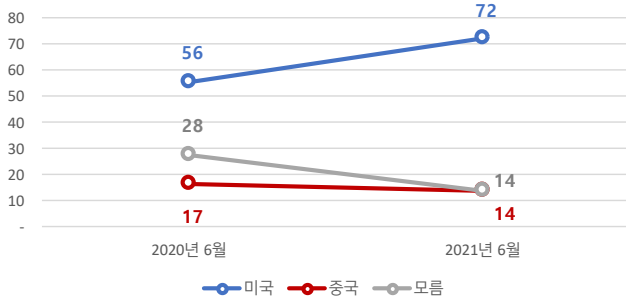


- ☑ 이렇듯 미국인들은 미국의 경제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매우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미국 정치권 역시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 미국 정치권의 이러한 시각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동일함
- ☑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미중간의 경제갈등은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자기 편 만들기' 흐름은 매우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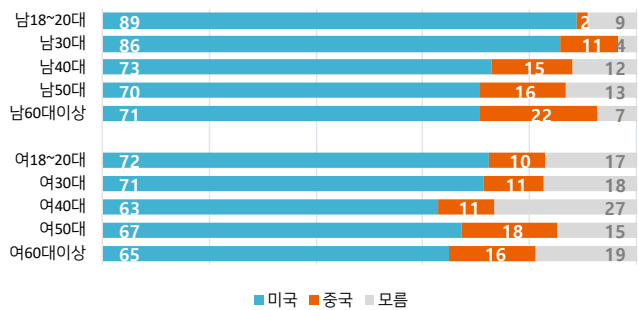
## □ 중장기적 경제협력 강화 국가, 미국 72% vs 중국 14%

- 미중간의 경제갈등이 본격화되는 현재,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할 때, 선생님께서는 어느 나라와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미국’이라는 응답이 72%로 ‘중국’(14%) 보다 높게 나타남 (잘 모르겠다, 14%)
- 작년 조사와 비교하면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여론이 더욱 높아졌고(16%p),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여론은 낮아짐(-3%p)
- 계층별로 살펴봐도 모든 계층에서 ‘미국’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음
  - 미국을 특히 높게 꼽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보수층 △자영업자 등임
-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50대 △호남 △진보층 △블루칼라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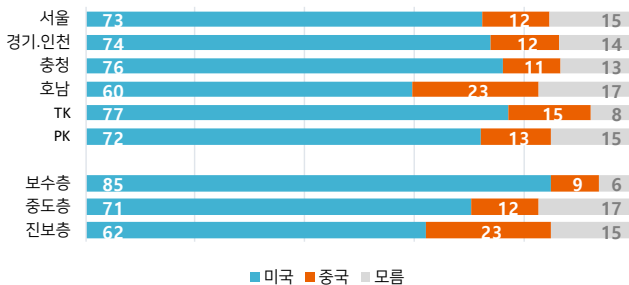
중장기적 경제협력 강화 국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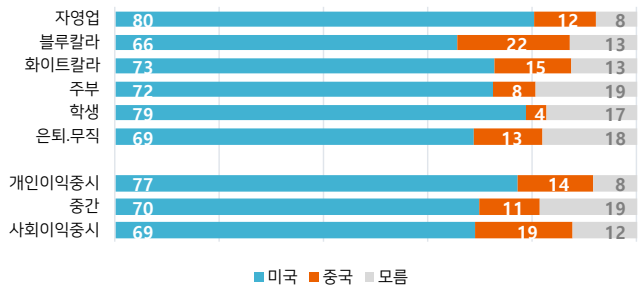
중장기적 경제협력 강화 국가 : 성/연령별 (2021.06.06조사,단위:%)



중장기적 경제협력 강화 국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중장기적 경제협력 강화 국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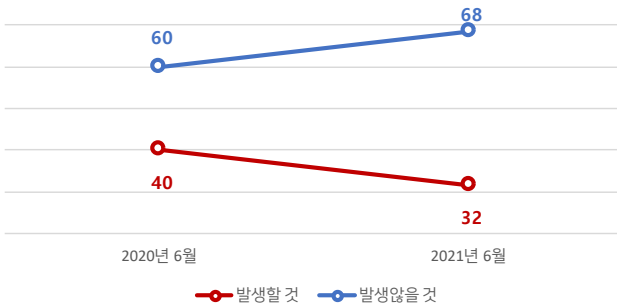
### Kstat Point

- ☑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 ‘경제블록’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은 기왕에 시작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중 갈등이 잠시 주춤하는 양상이지만, 수면 밑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중이라는 평가임
-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함
  - : 향후 미중갈등 와중에 대한민국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의 여론으로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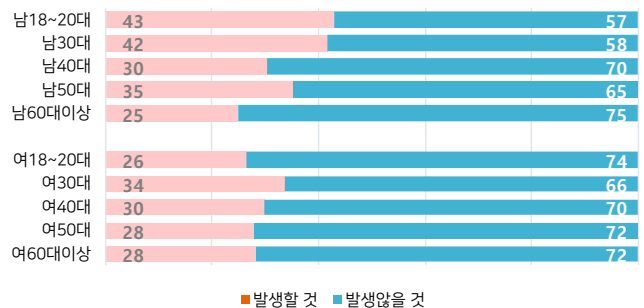
## □ 향후 세계대전, '발생할 것' 32% vs '발생 않을 것' 68%

-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무력충돌 비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
-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을 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 “선생님께서 앞으로 25년 안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초강대국이 연관된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발생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8%로 높게 나타남
- 작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발생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p 증가해 무력충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화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발생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여자 5060세대 △주부, 학생 등임
- 상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블루칼라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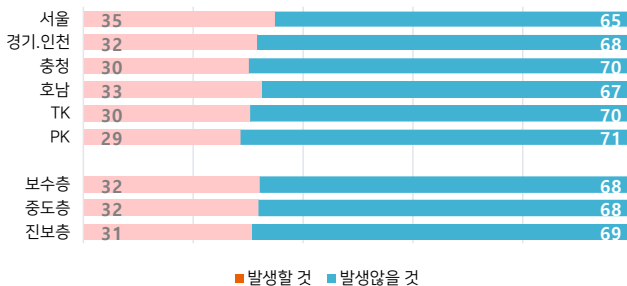
향후 세계대전 발발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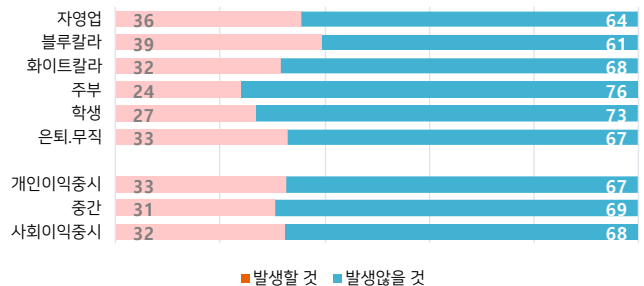
향후 세계대전 발발 전망 : 성/연령별 (2021.06.06조사,단위:%)



향후 세계대전 발발 전망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향후 세계대전 발발 전망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 Kstat Point

- ☑ 미중간의 패권 경쟁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제2의 냉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음
  - : 이러한 냉전 상황에서는 작은 오해나 실수가 전면전을 낳을 수 있기에 '제2의 냉전' 도래는 전 세계적인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임
- ☑ 현재 우리 국민들은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국제정세 및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30호] 발간 안내

30호는 『호감에 대한 국민인식 심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6월 24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